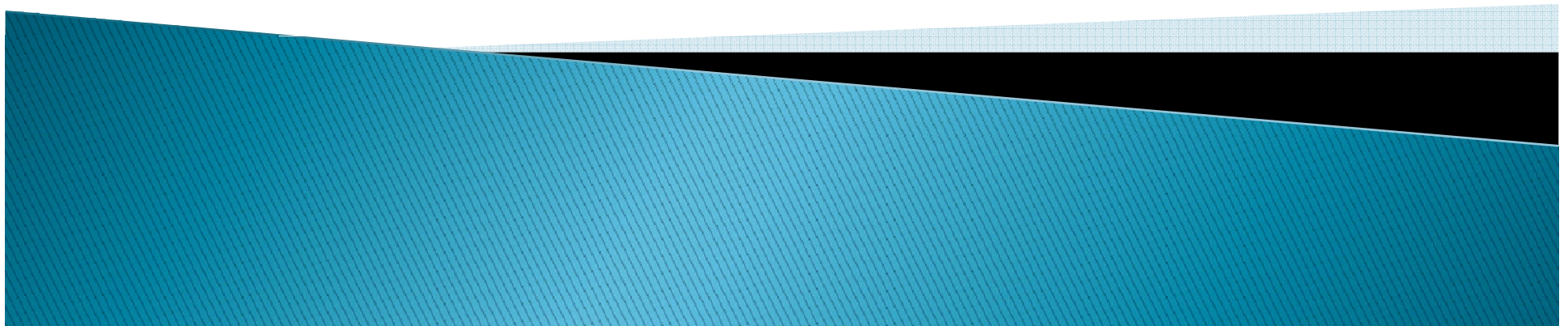


돼지 증식성 장염의 원인체 및 감염경로

혈 청 검 사 팀



돼지 증식성 장염의 원인체 및 감염경로

- ▶ **돼지 증식성 장염**(porcine proliferative enteropathy)은 **로소니아 인트라 셀룰라리스**(Lawsonia intracellularis)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임상증상과 병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'급성 출혈성 회장염', '괴사증식성 질병', '증식성 회장염'등으로도 불리운다. 주로 6-20주령의 비육돈의 출하 시기에 소장 점막의 비후는 물론 대장 점막까지 비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사료효율 저하, 증체량 감소, 시장출하 시기 지연, 폐사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심각하다.
- ▶ **돼지에 전파되는 경로**는 감염된 **돼지의 설사 분변이나 오염된 사료나 물** 등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며 흔히 새로운 돼지를 입식하거나 **수송차량, 사람의 이동에 의해 양돈장내에 들어와 밀사, 갑작스런 사료나 항생제의 변경, 수송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경우 발생하기 쉽다.** 1개월 이하나 1세 이상된 돼지는 질병 발생이 낮은편으로 연령에 따라 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다. 1개월 이하 돼지의 경우 초유 면역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1세 이상의 돼지는 이전엔 이미 질병에 노출되어 면역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. 이 병원체를 돼지가 먹게 되면 회장점막의 끝쪽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 증식이 이루어지며 감염된 상피세포는 창백, 부종상으로 되며 또다른 인접세포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이루어지며 분변으로 배출되어 다른 동물에 전파된다. 무균돼지에 이 병원체를 순수하게 배양하여 접종할 경우 질병이 잘 발현되지 않지만 무균돼지에 대장균이나 다른 세균을 먼저 투여한 다음 이 질병의 병원체를 접종하면 질병의 재현이 잘 일어남. 이것은 장내 세균총이 로소니아 인트라 셀룰라리스의 집락화 및 질병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.